

사회

광주 출근길 교통 대란·지각 사태

교통통제 시스템 2시간 장애 57개 교차로 신호 오작동

4월의 첫 월요일 출근시간, 광주시 교통통제 시스템이 전신장애를 일으켜 시가지 주요 교차로의 신호체계가 마비돼 심각한 교통 정체현상이 빚어졌다.

이번 사태는 지난 2004년 광주교통정보센터가 개소한 이래 지난해 9월 대규모 한전 정전 이후 두번째로, 지각사태가 잇따르는 등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2일 광주지방경찰청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남구 월산동에 위치한 '광주교통정보센터' 신호제어 서버 5대 중 2호기가 장애를 일으키면서 이날 오전 7시부터 오전 8시50분까지 1시간 50여분 동안 광주 57개 교차로의 신호체계가 오작동했다. 이로 인해 광주시 광산구 일대를 중심으로 서구, 북구 일부 교차로가 평소 출근길 신호체계가 달리 점멸 신호가 작동되거나 정지신호가 계속되면서 평소보다 3배 이상의 정체현상이 빚어졌다.

광산구 광송간 도로 공항방면의 경우 평상시에 없는 정체 현상이 수십분 동안 이어지면서 차량들이 1km가량 늘어섰고, 하남6번로의 경우도 정상 신호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진행신호 때 평상시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차량만이 통과했다.

이 같은 원인은 '출근→주간→퇴근→심야시간(평일 기준)' 등 시간대별 교통 흐름에 따라 신호주기와 체계를 자동으로 전환해주는 교통정보시스템 서버가 장애를 일으키면서 심야시간대 신호체계가 변동없이 출근시간

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일부 차량 운전자들은 중앙선을 넘어 진행을 하면서 진팔을 빼는 바람에 지각사태와 사고발생 직전의 상황도 잇따랐다.

회사원 김모(29)씨는 "점단지구에서 매월동까지 출근하는데, 신호체계가 엉망으로 작동해 평상시보다 2배가 넘는 시간이 걸렸다"며 "평소 진행신호 때 20여대가 지나갈 수 있었는데 이날은 5대만 겨우 통과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행사 예방 이렇게 2일 광주시 북구청 환경과와 보건소 직원들이 불철 행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린이들에게 마스크 착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담배꽂초 타액 DNA 확보 딱 걸린 '산수동 발발이'

**동부경찰, 3개월 추적
40대 성폭행범 붙잡아**

경찰이 범행 현장에서 확보한 범인의 DNA를 근거로 CCTV 분석과 3개월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숙청 '발발이'로 불린 성폭행범을 검거했다.

광주 동부경찰은 2일 여성들을 위협해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진모(41)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나원침 (8536) 김장두

청와대 승명? 불법사찰

친노, 반MB, 반이성득 비판 언론 뒷조사

한심한 정권이야

기름값, 물가, 가계빚, 실업, 대학등록금... 사할랑게 줄말야

정년 앞둔 60대 교사 10대 여제자 성추행

도교육청, 해임 의결

장애인 부모를 둔 10대 여제자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60대 교사에 대해 해임 결정이 내려졌다.

전남도 교육청은 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완도 모 중학교 교사 A(61)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에 '어려운 환경에서 마음고생이 많다'며 이 학교 재학생 B(15)양을 격려하는 과정에서 가슴과 엉덩이 등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징계위는 A씨가 교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어겼을 뿐만 아니라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제자를 상대로 성적(적)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 이 같은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A교사는 그러나 "학생을 격려하고 칭찬했을 뿐"이라며 성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A교사는 2010년 11월께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경징계 처분을 받은 다음 이 학교로 전보조치됐었다.

이와 함께 B양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도 A교사를 상대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주택가 도난 차량 불

2일 새벽 3시38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경매대 뒤 인근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된 카이런 승용차에서 불이 나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차량 불을 처음 본 목격자는 "차량 안쪽에서부터 불길기 치솟았다"고 경찰서 진술했다.

경찰은 불이 난 승용차가 도난 차량임을 파악, 절도범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중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건강보험료 사기범 급증

건보 광주본부, 작년 구상금 청구 소송 등 500여건

국민건강관리공단(이하 건보공단)의 부당 이득금 환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노리는 사기는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보험증 부정사용과 요양급여비 과다 청구 등 위법행위와 보험사기의 증가가 소송은 물론 징수소 하락으로 이어져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선의의 가입자들에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르면 지난해 부당 이득 관련 소송은 총 500여건으로 구상금 청구와 관련한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1억원 이상 고액 소송도 20여건에 달하고 있다.

광주지역본부의 부당 이득금과 구상금 처리 현황을 보면 ▲2008년 6만 2050건 ▲2009년 6만 2402건에서 ▲2010년 7만 9727건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2011년 7만 6079건을 나타냈다. 청구 금액도 ▲2008년 137억원 ▲

2009년 140억원 ▲2010년 157억원 ▲2011년 163억원이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법 위반 사항 외에 가입자들의 민·형사상 위법 행위가 증가했고 특히 계획적인 보험사기 사건이 자주 발생해 청구 건수와 소송액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경기집체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입자들이 위법을 저지르고 보험사기 등의 유혹에 빠져 환수금 청구가 늘고 있다는 것

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건전한 일부 가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 부당 이득금 환수와 미징수금이 늘면,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위험률이 조정돼 국민이 내야 할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등은 현재 보험사기로 새는 보험금을 대략 2조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가구당 약 14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수준의 금액이다.

이와관련 전문가들은 "사소한 위법이라도 철저히 파악할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급선무"라며 "공단도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만 늘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노래방 화질실 나옴 여성 몸 더듬어

노래방에서 유흥을 즐기던 만취 40대 회사원이 화질실에서 유흥을 보고 나오는 20대 여성의 몸을 더듬고 스킨십을 시도했다가 경찰서행.

○2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박모(48)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모 노래방건물 2층 화질실에서 나오는 A(여·22)씨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췄다는 등.

○박씨는 경찰에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노래방에서 함께 놀던 여성인 줄 알았던 것 같다"며 뒤늦게 후회.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호남총판 광주 1호점

안동 간고등어

오뚜기컵
고등어먹고 제주도로!

10박스 이상 구매시
제주도 왕복 항공
여행상품권 증정 2인(2박3일)
호도선물로 좋습니다!

안동간고등어 선/물/박스 ₩12,000~

제주도 2인 왕복항공여행권을 소지한고객만의 혜택

제주왕복항공요금무료여행권

문의전화 1577-4929
H.P 010-5760-9179
www.honamgodunga.com

대한불교조계종 문빈정사 남골당 허가번호: 제2006-1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빈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별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메가 벗겨진 묘, 동절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묘식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언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병든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법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빈정사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전경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